

# “데드풀2, 어벤져스엔 없는 매력 보여줄 것”

##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놀즈’ 출연 영화 ‘데드풀2’ 기자간담회



마블 역사상 최고의 악동 히어로 ‘데드풀’이 액션, 유머, 스케일 모든 면에서 더욱 강력해진 ‘데드풀2’ (감독 데이빗 레이치)로 돌아온다.

2일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놀즈가 참석한 가운데 영화 ‘데드풀2’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전날 한국에 도착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러 라이언 레놀즈는 “새벽 3시부터 공항에 도착해 나를 기다려준 한국 팬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환대받을 줄 몰랐고, 영광이다. ‘데드풀2’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작 ‘데드풀’은 전대미문의 히어로 등장을 알리며 압도적 호평과 함께 흥행에 성공했다. 월드와이드 R등급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청불 외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으며 331만 관객을 동원해 인기를 입증했다. 이러한 데드풀의 귀환에 영화팬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라이언 레놀즈는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완벽한 싱크로율로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연부터 제작, 각본 참여까지 1인 3역을 소화했기 때문에 감회는 더욱 남다를 터.

“데드풀’이 탄생하기까지 11년이 걸렸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드풀2’가 2년만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웃음) 오랫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관객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부담도 됩니다. 이번 ‘데드풀2’ 역시 성인을 위한 영화입니다. 전편보다 이야기가 확장됐고, 가족적인 영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데드풀이 말을 많이하는 진망스러운 캐릭터다보니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배우 라이언 레놀즈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영화 ‘데드풀2’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데드풀2 스틸컷. /이심세기폭스코리아

### 라이언 레놀즈, 주연·제작·각본 참여 ‘엑스포츠’ 결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유머감각·근거없는 자신감이 매력”

노련한 점도 덧붙였다.

영화 ‘데드풀2’는 액션은 기본,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로 중무장한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터지는 히어로 데드풀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조슈 브롤린)을 만나 원치않는 팀 ‘엑스포츠’를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매력적인 외모와 완벽한 비율로 미국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된 라이언 레놀즈는 작품 안에서 전신을 뒤덮는 수트를 입거나 화장 분장으로 외모를 가려야 했다.

그는 “데드풀은 못생긴 남자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외모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수트는 입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다른 사람이 벗겨줘야 한다. 촬영 초반에는 폐쇄공포증이 올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최악은 ‘새로운 수트’의 등장이

다. 오토바이탈 때 입는 수트는 평소 수트와 또 다르다. 그건 재질도 단단하다. 바닥에서 한 시간 정도 뒹굴면서 착용한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작품에서 데드풀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케이블 역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로 잘 알려진 조슈 브롤린이 맡았다.

데드풀과 케이블을 대적하는 유일한 여성 히어로 도미노 역에는 재지 비츠가 캐스팅됐다. 직접 오디션으로 재지 비츠를 캐스팅한 라이언 레놀즈는 “첫 대사를 할 때 이미 ‘도미노 역을 찾았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리딩을 자연스럽게 받아치는 게 완벽했다고.

이번 ‘데드풀2’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팀 ‘엑스포츠’에 대한 관객의 궁금증도 상당하다. ‘엑스포츠’에는 전편에서 활약한 네가소니 틴에이지 워헤드를 비롯해 케이블과 도미노, 비밀에 부쳐진 멤버까지 이색 케미를 선보일 전망이다.

“데드풀2’ 이후에 ‘데드풀3’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나오게 된다면 ‘엑스포츠’가 아닐까요? 그들은 어벤져스와는 다릅니다. 윤리적인 강인함과 도덕성은 결여된 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벤져스같은 착한 히어로들이 못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웃음)”

끝으로 라이언 레놀즈는 “데드풀은 다른 슈퍼 히어로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어벤져스와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영화는 캐릭터들이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랑받을 거라고 자신한다”며 “세련된 유머감각과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톡톡뽐낸 데드풀의 매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데드풀2’가 ‘데드풀’의 관객수를 뛰어넘는다면 카메라 앞에서 ‘소주’ 한병을 원샷할래요. 정말 말도 안되는 공약을 한 것 같네요. (웃음)”

영화 ‘데드풀2’는 오는 16일 국내에서 전세계 최초 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내일 코엑스서 ‘SM타운 뮤지움’ 오픈

서울 코엑스아트홀에 ‘에스엠타운 뮤지움(SMTOWN MUSEUM)’이 오픈된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2일 “새로운 전시·엔터테인먼트 체험공간 ‘SMTOWN MUSEUM’이 오는 4일 코엑스 아트홀에서 오픈된다”고 밝혔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자사 아티스트들의 히스토리를 집대성해 상징적으로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이는 것은 ‘SMTOWN MUSEUM’이 처음이다.

아트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SM의 복합문화공간으로, ‘SMTOWN MUSEUM’은 아트홀 3층에 오픈된다. SM 아티스트들의 데뷔부터 현재까지



의 역사를 비롯해 앨범, 활동 의상, 소품 등을 총망라해 SM 아카이브를 집대성한 만큼 한류의 새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뿐만 아니라 SM의 콘텐츠 제작 과정 관람,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SM 아티스트와 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 있어 기대감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SM의 콘텐츠 제작 과정 관람,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SM 아티스트와 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 있어 기대감이 높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韓 뮤지컬 ‘헤드윅’ 대만 무대 오른다

### 7월 20일부터 3일간 공연

대한민국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헤드윅’이 국내 무대를 넘어 대만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헤드윅’은 오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내셔널 타이중 시어터(National Taichung Theater)에서 공연된다. 한국 ‘헤드윅’의 저력을 보여줄 이번 공연에는 ‘헤드윅’ 역에 배우 오만석과 마이클 리가 출연하며, ‘이즈학’ 역에 배우 전혜선 제이민이 함께한다.

지난해 국내 공연과 마찬가지로 오만석은 한국어 버전 공연을, 마이클 리는 원어 버전 공연을 선보인다. ‘전설의 헤드윅’으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



휘한 오만석은 대체 불가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뮤지컬 ‘헤드윅’의 위업을 다시금 입증한다. 탁월한 가창력과 폭발하는 에너지로 좌중을 압도한 ‘헤드윅’ 마이클 리는 원어 버전 무대를 통해 현지 관객들과 교감하게 된다.

이번 대만 공연을 주최하는 내셔널 타이중 시어터는 대만 국립 공연예술 센터 산하 1호 국립 극장이다. 최첨단 시설과 격조 있는 예술적 설계를 겸비한 이곳은

여행객이라면 꼭 가봐야 할 랜드마크로 손꼽힌다.

브로드웨이 원작의 라이선스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버전 뮤지컬 ‘헤드윅’이 해외 무대에 진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뮤지컬 ‘헤드윅’의 대만 진출은 한국 ‘헤드윅’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한편, 한국 뮤지컬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 아트 티켓에서 회원 가입 후 구매가 가능하다. 뮤지컬 ‘헤드윅’은 7월 타이중 공연을 마친 이후, 8월 중순, 타이베이 공연을 추진 중이다. 타이베이 공연의 장소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5 | 해질 / 19:23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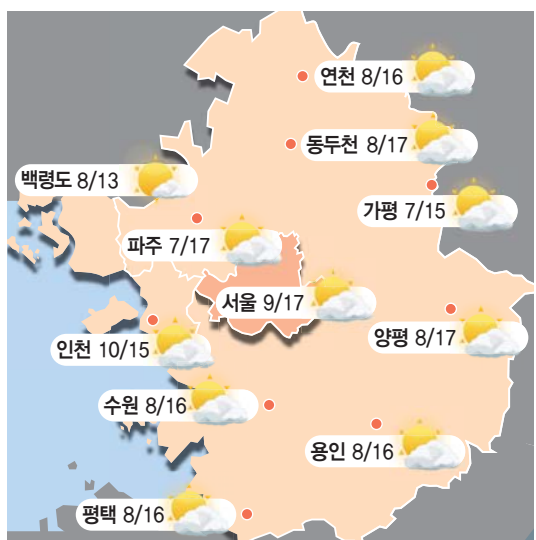
3일

음력 : 3월 18일

수도권 날씨

17~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사진)가 카림 벤제마의 2골 활약을 앞세워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2017-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꺾을 만한 8명 선수를 소개하면서 정현을 언급했다.

▲ 한국 탁구를 빛낸 ‘왕년 스타’ 유승민, 유남규, 현정화가 지난 1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총회에서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부산 유치를 만장일치로 성공시키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 상승세를 타고 있는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3일 오전 10시 40분(한국시간)에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올 시즌 4승에 도전한다.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1개로 4번 출루했다. 홈은 두 번 밟았다.

▲ 정우람(한화 이글스)이 5년 연속 10세이브 달성까지 1개만을 남겨뒀다. 1세이브를 추가하면 KBO 역대 5번째로 5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는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는 14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육석을 가리기 위해 국내 K리그 점령에 집중한다.